

### <2017. 8. 26 시행 국가직 7급 공무원 문항 분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선사시대	8			
고대	1, 5, 7			11
중세	13			
근세		6		10
근대태동기			14	16, 19
근대개항기	3, 9, 18			
일제강점기	4, 12, 17			
현대	20			
시대통합	2			15

### < 총 평 >

2017년 국가직 7급 한국사는 **작년 국가직 7급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어 **매우 까다로웠던 것**이 특징이다. 문항 유형은 단순문답형 문제가 6문제, 자료제시형이 12문제, **순서나열형은 3문제**였다. 자료제시형의 비중은 작년과 동일하나 단순문답형 문제가 줄어들면서 순서나열형 문제가 3문제 늘어났다.

시대사로는 전근대사가 12문제, 근현대사에서 7문제 출제되었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물어본 시대통합형 문제도 출제되었다. 전근대사에서는 선사시대 1문제, 고대 4문제, 중세 1문제, 근세 2문제, 근대 태동기 3문제 출제되었으며, **고려와 조선의 과거제도를 물어본 시대통합형 문제**도 출제되었다. 근현대사에서는 근대 개항기 3문제, 일제 강점기 3문제, 현대사 1문제가 출제되었다.

분류사로는 **정치사가 13문제, 문화사가 5문제** 출제되었으며, **경제·사회사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다. 문화사 출제 비중이 높았던 작년 국가직 7급과 달리 정치사의 비중이 다소 높았다. 하지만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고난도 문제는 대부분 문화사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번 시험에서 변별력 있는 문항은 4~5문제 정도 되었다. **생소하거나 힌트를 찾기 어려운 사료를 제시한 14번(장길산)과 16번(양명학)** 문제가 제일 어려웠으며,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본 10번(조선의 회화)과 19번(조선 후기 역사서)** 문제 또한 정답률이 낮았다. 그 외에도 **이자점을 물어본 13번 문제와 수능 형태로 출제된 6번 문제** 또한 정답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한국사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선지가 출제**되어 체감 난이도를 높인 경우도 있었다. 최근 시사 이슈가 반영된 **1번 문제(가야)**에서는 **후기 가야 연맹의 호남 지역 진출**과 관련된 선지가 출제되었으며, **8번 문제(부여)**에서는 **중국에서 수입한 옥갑(玉匣)**을 선지로 제시되었는데 모두 개정한국사에 수록된 내용들이다.

### <출제 문항 유형 분석>



### < 출제 문항 주제 분석 >

문항 번호	출제 분류	출제 주제	난이도
1	고대 정치	가야 연맹	중상
2	시대 통합형	고려와 조선의 과거제도	중
3	근대 개항기 정치	조·미 수호 통상 조약	하
4	일제 강점기 정치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	중상
5	고대 정치	발해	중상
6	근세 경제	조선의 경제 제도	중상
7	고대 정치	신라 하대 진성여왕	중상
8	여러 나라의 성장	부여	중
9	근대 개항기 정치	제1차 갑오개혁	중
10	근세 문화	조선의 회화	상
11	고대 문화	무령왕릉	중
12	일제 강점기 정치	대한민국 임시 정부	중
13	중세 정치	이자점	중상
14	근대 태동기 사회	장길산의 난	상
15	시대 통합형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중
16	근대 태동기 문화	양명학의 수용	상
17	일제 강점기 정치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	중
18	근대 개항기 정치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하
19	근대 태동기 문화	조선 후기의 역사서	상
20	현대 정치	6·25 전쟁	중

### < 신유형 및 고난도 문항 분석 >

구분	문항 번호	출제 주제	특징
신유형	6	조선의 경제제도	수능 형태의 문제가 때문에 제시된 자료에서 문제풀이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히 추려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정답 선지에 나온 '논'의 소유주와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봐야 한다.
고난도 문항	10	조선의 회화	정답 선지인 조선 후기의 심사정뿐만 아니라 오답 선지의 세 명의 화가와 작품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정답을 고르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다.
	14	장길산의 난	제시된 사료만으로 장길산을 추론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문제로, 장길산의 난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
	16	양명학의 수용	사료의 첫 번째 문장에서 양명학을 추론해내야 했던 문제였으며, 매력적인 오답 선지가 있어 체감 난이도를 더욱 높였다.
	19	조선 후기 역사서	안정복의 『동사강목』에 영향을 준 역사서를 물어본 문제로, 해당 파트를 꼼꼼히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은 정답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정답(가책형 기준)

1. ③	2. ①	3. ④	4. ②	5. ④
6. ③	7. ②	8. ①	9. ②	10. ②
11. ②	12. ①	13. ②	14. ②	15. ③
16. ①	17. ①	18. ④	19. ③	20. ①

1.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조는 이진아시왕이다. 그로부터 도설지왕까지 대략 16대 520년이다. 최치원이 지은 『석이정전』을 살펴보면, 가야산 신 정견모주가 천신 이비가자에게 감응되어 이 나라 왕 뇌질주일과 금관국왕 뇌질청에 두 사람을 낳았는데, 뇌질주일은 곧 이진아시왕의 별칭이고 뇌질청에는 수로왕의 별칭이라고 한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 ① 5세기 후반부터 급성장해 가야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 ②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을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남겼다.
- ③ 시조는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와 혼인을 하였다고 전한다.
- ④ 전성기에는 지금의 전라북도 일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1. 가야 연맹

정답 : ③

밑줄 친 '이 나라'는 대가야다. ③ 금관가야에 대한 설명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금관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은 바다에서 온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과 혼인을 맺었다.

오답분석 : ① 대가야는 5세기 후반부터 급성장하여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② 대가야의 근거지인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은 대표적인 가야의 고분군 중 하나다. ④ 후기 가야 연맹은 소백산맥 넘어 호남 동부 지역에 진출하여 북으로는 전라북도 남원과 임실, 남으로는 섬진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후 6세기 초 무령왕 때 섬진강 유역을 비롯한 호남 동부 지방을 상실하자 대가야는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

(2018 해법국사 1권, 가야 연맹, 79-80쪽)

해법노트 - 후기 가야 연맹



“5세기 이후 고령의 대가야가 ... 후기 가야 연맹의 중심이 되었다. 그 후 가야 연맹은 소백산맥 넘어 호남 동부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 6세기에 가야 연맹은 백제에 밀려 소백산맥 서쪽의 호남 동부 지역을 상실하였다.” - 지학사 한국사 교과서

2. 고려와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고려시대에는 제술업이 명경업보다 중시되어 그 합격자를 중용하였다.
- ㉡ 고려시대 국가감시는 국가감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이었다.
- ㉢ 조선시대에 잡과에 합격한 기술관은 해당 관청에서 최고 정3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 ㉣ 조선시대의 음서 대상도 고려시대와 동일하여 음서를 통하여 고위 관리까지 진출하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2. 고려와 조선의 과거제도

정답 : ①

㉠ 고려시대에는 사장(한문학)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제술과가 명경과보다 중시되었다. ㉡ 조선시대 관직 진출에는 출신 신분 따르 한계가 있었는데 기술관은 서얼과 함께 정3품 당하관까지, 토관·향리는 정5품까지, 서리는 정7품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다. 이를 한품서용제라고 부른다.

오답분석 : ㉢ 국가감시는 국가감에서 진행되는 2차 시험으로 국가감생뿐만 아니라 향시 합격자와 12공도 생도, 현직 관리 등이 시험을 볼 수 있었다. ㉣ 조선시대에 음서는 고려시대에 비하여 혜택 받는 대상이 5품이상 관리에서 2품 이상 관리로 축소되었다. 또한 음서 출신은 관직 진출에 제한도 있어 문과에 합격하지 않으면 고관으로 승진하기 어려웠다.

(2018 해법국사 1권, 고려의 관리 등용 제도, 216쪽 / 조선의 관리 등용 제도, 357~359쪽 / 조선의 한품서용제, 409쪽)

3.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통상을 요구해 왔다. 이어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조선군의 결사 항전과 정부의 통상 거부로 미군은 결국 퇴각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조선 정부도 수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권대관 신헌 등을 통해 미국과 ㉠을(를) 체결하였다.

- ① 조선과 영국의 통상 조약 체결 이후 맺어졌다.
- ② 양국의 무제한 수출, 무관세, 무항세 조항이 포함되었다.
- ③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알선과 중재로 체결되었다.
- ④ 다른 나라의 압박을 받으면 거중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 있었다.

3.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은 1882년에 체결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다. ④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제 1조에는 “만약 타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경멸하는 일을 일으켰을 때에는 일단 확인하고 서로 고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정하여 두터운 우의를 보여준다”고 하여 양국간의 거중 조정 조항이 들어 있다.

오답분석 : ① 조영 수호 통상 조약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이후인 1883년에 체결되었다. ② 조일 무역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③ 일본이 아니라 청이다. 청은 러시아와 일본 세력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중주권을 국제적으로 승인받기 위해 조선과 미국의 조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알선하였다.

(2018 해법국사 2권, 조일 무역 규칙, 617쪽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618-619쪽)

4. 밑줄 친 '이곳'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곳에서는 한인 집단 거주지인 신한촌이 형성되어 자치 기구와 학교가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곳에서 이상설 등은 성명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벌였고, 이후 임시정부의 성격을 가진 대한국민의회가 전로한족회중앙총회로부터 개편 조직되었다.

< 보 기 >

- ㉠ 권업회라는 독립운동 단체가 조직되었다.
- ㉡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홍강습소가 설치되었다.
- ㉢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어 독립운동을 벌였다.
- ㉣ 신규식, 박은식 등의 주도로 동제사가 조직되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4. 국외 독립 운동 단체

정답 : ②

밑줄 친 '이곳'은 연해주다. ㉠ 권업회는 1911년 연해주 지역에서 창립된 독립 운동 단체다. ㉢ 대한광복군 정부는 권업회가 1914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세운 망명 정부다.

오답분석 : ㉡ 신홍강습소(신홍 무관 학교)는 1911년 남만주 삼원보 지역에 설립되었다. ㉣ 동제사는 1912년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다.

(2018 해법국사 2권,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795~797쪽)

5.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왕을 '황상' 또는 '대왕' 등으로 칭하였다.
- ② 모피, 우황, 구리, 말 등을 당나라에 수출하였다.
- ③ 상경(上京)은 당나라 도성을 본떠 조방(條坊)을 나누었다.
- ④ 중앙의 주요 관서에 각각 복수(複數)의 장관을 임명하였다.

5. 발해의 건국과 발전

정답 : ④

중앙의 주요 관서에 복수의 장관을 임명한 국가는 통일 신라다. 오답분석 : ① 발해는 황제국 체제를 표방하여 국왕을 '황상' 또는 '대왕' 등으로 칭하였다. ② 발해는 수렵이 발달하여 각종 모피가 많이 생산되었다. 목축업도 발달하여 돼지, 말, 소, 양 등을 길렀는데, 소의 결석으로 만든 약재인 우황도 유명하였다. 또한 철·구리·금은 등 금속 가공업도 발달하였다. 이러한 물품들은 주로 당나라에 수출되었다. ③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은 당의 수도인 장안을 본떠 건설하였다. 황성 남문에서 외성 남문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된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좌경(左京)과 우경(右京)으로 갈리고, 이것을 다시 여러 조방(條坊)으로 나누어 바둑판 모양으로 구획을 지었다.

(2018 해법국사 1권, 발해의 건국과 발전, 106~109쪽 / 발해의 경제, 137쪽 / 발해 상경성, 176쪽)

해법노트 - 발해의 특산물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태백산의 토끼, 남해부의 곤포(다시마),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슴, 막힐부의 돼지, 술빈부의 말, 현주의 포(베), 옥주의 면(누에솜), 용주의 주(명주), 위성의 철, 노성의 쌀, 미타호의 붕어가 있고, 과일에는 환도의 오얏, 낙유의 배가 있다. - 『신당서』

6. 다음은 조선시대 어느 관원의 일기에서 발췌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568년 : 광흥창에서 쌀 7섬, 콩 7섬, 명주베 1필, 삼베 3필을 받아왔다.
- 1568년 : 쌀 4섬 5되와 베 10필, 콩 2섬으로 이형이라는 사람의 밭을 샀다.
- 1569년 : 노비 석정이 와서 올해 논의 총 수확이 모두 83섬이라고 말했다.
- 1570년 : 이효원이 찾아와 호조에 속한 공장(工匠)이 만들어 파는 충정관(冲靜冠)의 구입을 권하였다.

- ① 이 관원은 녹봉을 광흥창에 가서 받았다.
- ② 이 관원이 이형에게 산 밭은 병작반수의 형태로 경작을 시킬 수 있었다.
- ③ 이 관원은 논의 총 수확 83섬의 10분의 1을 농민들로부터 수조할 수 있었다.
- ④ 이 관원은 관청에 소속된 공장들이 개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6. 조선의 경제 제도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의 시기는 16세기다. 농민에게 수확량의 1/10을 수조한 시기는 15세기 세종 때 공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일이다. 또한 16세기 중엽부터는 직전법이 폐지되기 때문에 농민으로부터 수조받을 수 있는 토지는 사라졌으며, 오직 녹봉만을 받게 되었다.

오답분석 : ① 조선시대 관리의 녹봉은 한강 하류 지역의 광흥창(좌창)에서 지급되었다. ② 1568년 이형에게 구입한 밭은 그 주변 농민들에게 병작반수의 형태로 경작을 시킬 수 있었다. ④ 관청에 등록된 장인인 공장은 관청에 동원되는 기간 이외에 만든 제품이나 자신의 책임량을 초과한 생산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개인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

(2018 해법국사 1권, 조선의 조운제도, 396쪽 / 양반 지주의 경작 방식, 403쪽 / 조선의 수공업자, 404~405쪽)

7. 신라 말 진성왕 대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견훤이 무진주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 ② 궁예가 국호 마진을 태봉으로 바꾸었다.
- ③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 ④ 양길이가 부하를 보내 명주 관할 군현을 공격하였다.

7. 신라 하대 진성여왕

정답 : ②

신라 말 진성(여)왕의 재위 기간은 887~897년으로 후삼국 시대 이전이다. ② 901년 효공왕 때, 궁예는 송악에 도읍을 정하고 후고구려를 세웠다. 이후 904년에는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이듬해 수도를 철원으로 옮겼으며, 911년에는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

오답분석 : ① 진성여왕 때 견훤은 무진주(광주)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③ 진성여왕 때 사벌주에서 원종과 애노가 난을 일으켰다. ④ 진성여왕 때 강원도 원주 지역에서 양길이가 농민 반란을 이끌었는데, 궁예를 받아들인 후 세력을 확대하여 명주까지 영역이 확대되었다.

(2018 해법국사 1권, 진성여왕 시기의 사회적 혼란, 105쪽 / 후삼국시대, 202~203쪽)

8. 다음 글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형벌이 엄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들을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을 하면 12배를 변상하게 하였다. ...<중략>... 성책(城柵)의 축조는 모두 둥근 형태로 하는데, 마치 감옥과 같았다. ...<중략>... 사람이 죽으면 여름철에는 모두 얼음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냈다. ...<중략>... 장사를 후하게 지냈으며, 괭(槨)은 사용하였으나 관(棺)은 쓰지 않았다.  
- 『삼국지』

< 보 기 >

- ㉠ 여섯 가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하였다.
- ㉡ 국왕의 장례에는 옥갑(玉匣)을 사용하였다.
- ㉢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를 갖고 있었다.
- ㉣ 온 집안 식구들을 하나의 괭 속에 넣어 매장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8. 여러 나라의 성장(부여)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는 부여다. ㉠ 부여에서는 여섯 가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하였는데, 전해지는 것으로는 마가 구가저가우가가 있다. ㉡ 부여는 중국으로부터 장례 용구인 옥갑(玉匣)을 수입하였는데 주로 국왕의 장례 때 사용하였다. 오답분석 : ㉢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다. ㉣ 옥저의 장례 풍습에 대한 설명이다.

(2018 해법국사 1권, 부여, 50~51쪽 / 고구려, 52쪽 / 옥저, 55쪽)

해법노트 - 옥갑(玉匣)



수백 개의 옥을 꿰매어 만든 장례 용구로 한에서 천자나 제후가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의 온몸을 감쌌다.

- 지학사 한국사 교과서

9. 밑줄 친 '이 내각'의 재정 개혁안으로 옳은 것은?

이 내각의 개혁 정책은 초정부적 비상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군국기무처에는 박정양, 유길준 등의 개화 인사들이 참여하여 개혁 정책을 결정하였다.

- ①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하도록 한다.
- ② 국가 재정을 탁지아문의 관할로 일원화시키도록 한다.
- ③ 궁내부 산하의 내장원에서 광산, 홍삼 사업 등의 재정을 관할하도록 한다.
- ④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한다.

9. 제1차 갑오개혁      정답 : ②

밑줄 친 '이 내각'은 제1차 김홍집 내각이다. 제1차 김홍집 내각은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제1차 갑오개혁을 진행하였다. ② 제1차 갑오개혁에서는 회계와 출납 등 재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탁지아문에서 일원적으로 관장하였다.

오답분석 : ① 갑신정변 14개조 개혁 정강의 내용이다. ③ 광무개혁의 내용이다. ④ 독립협회의 헌의 6조의 내용이다.

(2018 해법국사 2권, 갑신정변 14개조 개혁 정강, 634쪽 / 제1차 갑오개혁, 651~653쪽 / 헌의 6조, 663쪽 / 광무개혁, 667쪽)

10. 사람의 문화를 반영한 16~17세기 그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이정의 「풍죽도」
- ② 심사정의 「초충도」
- ③ 어몽룡의 「월매도」
- ④ 황집중의 「목포도도」

10. 조선의 회화와 그림      정답 : ②

심사정은 조선 후기 18세기 후반에 활동한 화가로, 정교하고 세련된 필치의 산수를 잘 그렸다.

오답분석 : ①③④ 16세기에 활약한 황집중은 포도, 이정은 대나무, 어몽룡은 매화를 잘 그린 것으로 유명한데 이들을 3절이라고 부른다.

(2018 해법국사 1권, 조선 중기 3절, 448쪽 / 심사정, 580쪽)

11. 다음 기행문의 ㉠에서 출토한 유물로 적절한 것은?

며칠 전 나는 공주 시내에 있는 유적지를 둘러보았다.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은 송산리 고분군이었다. 그곳에는 ㉠가(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었다. ㉠는(은) 연도(羨道)와 현실(玄室)을 아치형으로 조성한 벽돌 무덤이다. 이 무덤에서 금송(金松)으로 만든 왕과 왕비의 관(棺)을 비롯하여 많은 부장품을 출토하였다. 중국 남조 양나라나 왜와의 교류를 짐작케 하는 무덤이다.

- ① 무덤 안에 있는 여러 옷차림의 토우
- ② 무덤 안에 놓여 있는 왕과 왕비의 지석
- ③ 무덤 안의 네 벽면을 장식한 사신도 벽화
- ④ 무덤 주위를 둘러싼 돌에 새겨진 12지 신상

11. 무령왕릉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은 무령왕릉이다. ② 무령왕릉에는 왕과 왕비의 지석이 발견되었는데 도교 사상과 관련된 매지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오답분석 : ① 토우는 주로 가야와 신라의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다. ③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없다. ④ 통일 신라 시대에 등장한 고분 양식에 대한 설명이다.

(2018 해법국사 1권, 도교와 풍수지리설, 165~166쪽 / 무령왕릉, 174쪽 / 통일 신라의 고분, 175쪽)

12.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 충청으로 이동하였다.
- ㉡ 부주석제를 신설하여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하였다.
- ㉢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를 한국광복군에 편입하였다.
- ㉣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 ① ㉠→㉢→㉡→㉣      ② ㉡→㉠→㉢→㉣
- ③ ㉢→㉡→㉠→㉣      ④ ㉢→㉣→㉡→㉠

12. 대한민국 임시 정부      정답 : ①

㉠ 1940년 → ㉢ 1941년 → ㉣ 1942년 → ㉡ 1944년

(2018 해법국사 2권, 임시 정부의 재정비, 781쪽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조직 강화, 805~807쪽)



17.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일제는 중국 마적단을 매수하여 훈춘의 일본영사관을 공격하게 하는 조작 사건을 일으켰다.
- ㉡ 서일을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 ㉢ 일제는 무장 독립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만주 군벌과 미쓰야 협정을 맺었다.
- ㉣ 한국독립당의 산하에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 독립군이 조직되었다.

- ① ㉠→㉡→㉢→㉣                      ② ㉡→㉠→㉣→㉢
- ③ ㉢→㉣→㉡→㉠                      ④ ㉣→㉢→㉠→㉡

17.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                      정답 : ①

㉠ 1920년 일제는 훈춘 사건을 일으켜 이를 구실로 만주 지역에 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였다. → ㉡ 1921년 서일을 총재로 하는 통합 군단인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고 소련령 흑룡강 유역의 자유시로 들어갔다. → ㉢ 1925년 일제는 독립군 탄압을 위해 만주 군벌과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 ㉣ 혁신의회는 1930년 한국 독립당으로 개편하였고, 산하에 한국 독립군을 결성하였다.

(2018 해법국사 2권,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 798~803쪽)

18. 다음 상황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일본군이 경북공을 습격하자 이에 전봉준은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하여 농민군의 삼례 집결을 도모하였고, 기병을 촉구하는 통문을 돌렸다. 통문에는 “이번 거사에 호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충무도(不忠無道)한 자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보 기 >

- ㉠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관군을 격파하였다.
- ㉡ 정부와 농민군은 전주에서 화약을 맺었다.
- ㉢ 북접군과 남접군이 논산에서 합류하여 집결하였다.
- ㉣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 연합부대를 맞아 격돌하였다.

- ① ㉠, ㉡                      ② ㉠, ㉢
- ③ ㉡, ㉣                      ④ ㉢, ㉣

18. 동학 농민 운동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1894년 6월 일본의 경북공 점령 이후 동학 세력이 2차 봉기를 계획하는 장면이다. ㉢ 동학 농민군의 2차 봉기 때 10만여 명의 전라도 농민군(남접)이 삼례에 집결하였으며, 손병희가 이끄는 10만여 명의 충청도 농민군(북접)과 함께 1894년 10월 논산에서 합류하였다. ㉣ 1894년 11월 공주를 점령하려 한 농민군은 우금치에서 관군 및 일본군과 큰 격전을 벌였다. 1주일간의 공방전을 벌인 이 전투에서 농민군은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채 대부분의 병력을 잃고 후퇴하였다.

오답분석 : ㉠ 황토현 전투는 1894년 4월이다. ㉡ 전주 화약은 1894년 5월이다.

(2018 해법국사 2권,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644~648쪽)

19. 조선 후기 역사서에 나타나는 정통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상덕의 『동사회강』에서는 마한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삼국을 무통으로 보았다.
- ②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는 삼국을 무통으로 하고 단군-기자-마한-통일신라를 정통으로 하였다.
- ③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에서는 단군을 배제하고 기자-마한-통일신라의 흐름을 정통으로 규정하였다.
- ④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에서는 기자의 전통이 마한을 거쳐 신라로 이어졌다고 하여 기자-마한-신라를 정통 국가로 내세웠다.

19. 조선 후기 역사서                      정답 : ③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은 기존의 삼한 정통론에서 단군을 추가한 단군 정통론을 제시하였다. 홍만종의 단군 정통론은 이후 이익과 안정복에게 영향을 주었다.

오답분석 : ① 임상덕의 『동사회강』 유계의 『여사제강』을 계승하면서 단군과 기자에 관한 고증을 첨가하였다. 또한 기자조선과 마한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삼국시대를 무통(無統)의 시대로 보았다. 임상덕의 삼국무통론은 안정복의 『동사강목』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②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홍여하로부터 시작한 정통론 논의를 정리하여 우리나라의 독자적 정통론을 체계화하였다. 그는 조선의 정통성이 단군-기자-마한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으며, 삼국시대를 무통으로 본 대신 통일신라 이후 왕조를 정통으로 보았다. ④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은 『동국통감』을 정리한 편년체 역사서로, 남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기자-마한-신라를 정통으로 하는 삼한정통론을 내세웠다.

(2018 해법국사 1권, 조선 후기 역사서, 566~567쪽)

20.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950. 6.	1950. 9.	1951. 1.	1951. 6.	1953. 7.
		(가)		
6·25전쟁 발발	서울 수복	1·4후퇴	휴전회담 시작	정전협정 체결

- ① 대규모 해상 작전인 흥남 철수가 이루어졌다.
- ② 이승만 정부가 반공 포로의 석방을 단행하였다.
- ③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되었다.
- ④ 미국은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선언하였다.

20. 6·25 전쟁                      정답 : ①

1950년 10월 중국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하였다. 1950년 12월에 군수송선과 모든 민간 선박까지 동원된 흥남 철수 작전을 통해 북한 주민을 포함한 약 10만 명의 피난민을 수송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의 후퇴로 1951년 1월 4일 서울은 다시 북한군의 수중에 넘어갔다(1·4 후퇴).

오답분석 : ② 1953년 6월의 일이다. ③ 1·4 후퇴 이후 UN군 최고사령관인 맥아더는 트루먼 대통령과 대립하면서 1951년 4월에 사령관직에서 해임되었다. ④ 1950년 1월의 일이다.

(2018 해법국사 2권, 6·25 전쟁, 888~891쪽)